



3일 제주시 봉개동 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6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추념사를 하고 있다(왼쪽). 4·3평화공원 내 희생자 위패봉안소에서 한 유족이 희생자 이름을 아무만지고 있다. 제주도시진기자회

“4·3 상처 보듬고 치유 화합과 통합의 미래로” 한덕수 총리 추념사에서 밝혀

제주4·3 제76주년인 3일 “정부는 4·3사건의 상처를 보듬고 치유해 화합과 통합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제주 4·3희생자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추념식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명의 추념사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했지만, 올해는 한 총리가 자신의 명의로 직접 추념사를 했다.

한 총리는 “4·3희생자와 유가족분들은 기나긴 세월 동안 제대로 된 진상 규명도 받지 못한 채 숨죽이며 살아왔다”면서 “한 분, 한 분의 무고한 희생과 아픔을 우리 모두는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2000년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희생자분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길이 열렸다. 정부는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진상조사와 희생자 신고 접수를 추진해 왔고 2022년부터는 한국전쟁 전후에 일어난 민간인 희생사건 중에서 사상 처음으로 국가 보상도 시행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희생자와 유가족분들의 한과 설움을 씻어낼 수는 없겠지만, 진심 어린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 한 총리는 “4·3사건 희생자의 낯을 기리고 유가족의 아픔을 위로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로, 정부는 4·3사건의 상처를 보듬고 치유해 화합과 통합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존 희생자와 유가족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트라우마 치유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더욱 힘쓰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태윤기자 ity9456@ihalla.com

“제주 4·3, 완전한 해결 위한 노력 지속돼야”

어제 4·3평화공원에서 제76주년 4·3 희생자 추념식 유족들과 중앙 정치권에서 찾아 희생자 낯 기러 “트라우마센터 본원 승격·전액 국비 지원” 요청

“증조할아버지는 토벌대가 들로 머리를 내려져 죽음을 이르게 됐다고 합니다. 증조할아버지 묘를 이장할 때 유골이 나타났는데 얼굴뼈가 있어야 할 자리에 오목한 뒤통수뼈 한조각만 있었다고 해요. 할머니와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큰 아빠는 ‘저 손바닥만한 뒤통수뼈가 어머니가 기억해야 할 아버지 얼굴이고 제가 기억해야 하는 외할아버지 얼굴이구나...’라는 말을 남기기도 하셨습니다. 즉 얼굴 없는 얼굴이 저희 가족이 기억해야 할 증조할아버지의 얼굴입니다.”

4·3 유족 김옥자 할머니가 아버지를 기억하는 사연이 10대 손녀에 의해 전해지자 추념식장은 눈물바다가 됐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제주자치도가 주관한 제76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이 3일 오전 10시 제주4·3평화공원에서 유족과 도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한 분위기에서 거행됐다. >> 관련기사 2·5면

추념식에 윤석열 대통령은 불참했고, 이를 대신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으로 4·3 추념식에 참석할 바 있으나,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계속 불참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대표,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서진희 민생당 대표, 오영환 새로운미래 대표, 인

요한 국민의미래 선대위원장, 김예지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또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을 비롯해 경기와 인천 등 13개 시도 교육감도 참석했다.

국무위원으로는 제주 출신인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참석했고, 광역자치단체장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이 자리했다.

이날 추념식은 오전 10시 정각 1분간 묵념 사이렌이 도내에 울려 퍼지며 거행됐다. 특히 행사장에서는 유족 사연으로 4·3 당시 부모, 형제를 모두 잃고 타지에서 힘들게 지내다 20대 때 귀향한 김옥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영상과 10대 손녀의 낭독으로 소개됐다. 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희생자의 얼굴을 복원했고, 이에 김옥자 할머니는 점차 기억속에서 사라져가는 아버지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김 할머니와 유족

이 눈물을 흘렸고, 추념식장은 눈물바다가 됐다.

제주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온 도민이 한마음으로 꾸준한 진전을 이뤄온 만큼 올해 추념식은 각별한 의미를 더했다.

특히 4·3유족들은 정부에 국립트라우마 치유센터 제주 본원을 본원으로 승격시켜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유가족의 아픔을 위로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화합과 통합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김창범 4·3유족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4·3으로 뒤뜰린 가족 관계도 폭넓게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시는 정부와 정치권,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면서도 “하지만 국가공권력에 의해 부모, 형제들이 이유 없이 죽임을 당하거나 억울한 옥살이로 시신조차도 찾지 못한 저희들에게 이 모든 상처와 고통이 치유될 수 없

다. 국립트라우마 치유센터 제주 본원을 본원으로 승격시키고 전액 국비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추념사를 통해 “4·3사건 희생자의 낯을 기리고 유가족의 아픔을 위로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면서 “정부는 4·3사건의 상처를 보듬고 치유해 화합과 통합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생존 희생자와 유가족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트라우마 치유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더욱 힘쓰겠다. 국제평화문화센터 건립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영환 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제주도민들의 힘으로 쌓아온 평화, 상생의 가치와 경험은 빛나는 미래를 여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제주도가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이태윤기자

한라일보 창간 35주년을 축하합니다

비만은 치료가 필요한 질병입니다

비만예방을 위한 생활습관 개선!!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